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전홍용 편집 : 양재용

천국일꾼, 예수님을 만나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마1:1)

방학을 맞이하여 각 교육부서에서는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 고등부(1.3~5) 및 중등부(1.10~12) 수련회가 은혜 중에 끝났으며 이제 2월과 3월에 걸쳐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2011년 성경학교와 수련회부터 시작하여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체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교육주제가 2015년까지 연속됩니다. 천국일꾼들은 성경 전체와 각 권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마 1:1)라는 주제로 진행될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로 분주한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각 가정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딛 2:12~13).

2011년~2015년 성경학교 주제 일람

2011년 겨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여름/ 구약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
2012년 겨울/ 신약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	여름/ 모세오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
2013년 겨울/ 4복음서 속의 예수 그리스도	여름/ 역사서 속의 예수 그리스도
2014년 겨울/ 서신서 속의 예수 그리스도	여름/ 시가서 속의 예수 그리스도
2015년 겨울/ 선지서 속의 예수 그리스도	여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성명의 말씀(금요찬양집회)

구약에 비추인 빛

마태는 모든 역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한 절(마 1:17)로 함축하였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또 그의 중요성을 말해 주며, 계보 자체가 구약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직접적인 연결성을 보여 준다. 이 연결성은 하나님의 행동에 근거한다. 마태복음 1장 후반부에 묘사되어 있는 사건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전반부에 암시되어 있는 모든 사건에도 역시 능동적으로 개입하셨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그것을 완성시키셨다. 이 말은 곧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의 의미와 정당성을 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의미한다(마 1:16,18).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이다. 성령에 의하여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사 7:14). 그 안에는 인간을 구하시는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마 1:20~21). 예수, 임마누엘은 이름 그대로 인류 안에 함께 하신다(요 1:1~4).

지금까지 우리는 진정한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 하였다.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수없이 많은 축복된 예언으로 가득 찬 약속이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이 속에서 약속들이 생겼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간다. 그러나 인간은 이해가 될 때에만 그 관계를 인식한다(시 66:4~8). 완성된 약속만을 가지고 구약을 바라본다면 구약의 내용을 아주 작은 부분에서만 이해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한다면 이제 구약은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는데 그 그림자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질문은 구약의 의미를 왜곡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건은 그 자체가 실제로 있었던 실존적인 사건으로 이 사건들을 거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죽음 자체였다. 이 사건들 안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실존적인 관계가 있다.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유대인들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히 1:1~3).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저들이 속하였던 역사적인 상황에 펼쳐지는 특별한 사건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손총의 빛이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여 이루신 내용을 마음에 두고 구약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각 사건들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다(시 50:1~2).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저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게 된다.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서 이야기의 끝이 가져다 주는 의미를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보게 되며, 그리스도가 누구며 또 그가 행하신 일, 하신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사 9:6~7).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 출애굽을 볼 때에 출애굽 그 자체와 준비되는 과정 등 성경이 기록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억눌려 있는 자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공의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 준다(신 1:30~31).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성취된 모든 것을 넘어 죄악에서 전적으로 구속되어야 하는 더 큰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해 준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야만 하는 필요성을 보여 준다. 이러한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것이다. 이것은 변화산에서 성취되었다.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실 그 출애굽을 표현해 준다(눅 9:29~31). 구약의 선지자들은 진정으로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고 더 큰 출애굽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렸다(신 18:15). 이 세상 끝까지, 세상의 구석구석에까지 이르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 완성할 그날을 소망하였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출애굽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말적인 구원에 비추어 볼 때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야말로 진실로 중요하다. 아멘.

Sermon for Next Sunday

THE MISSIONARY PAUL

(18)But I have received everything in full and have an abundance;
I am amply supplied, having received from Epaphroditus what you have sent,
a fragrant aroma, an acceptable sacrifice, well-pleasing to God.
(19)And my God will supply all your needs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in Christ Jesus.
(Philippians 4:18~19)

Paul was the greatest missionary of all! He loved Jesus Christ, the gospel, and lost souls. He had a true missionary heart. His wonderful thank-you letter to the Philippian church shows us the depth of his love for the church. Paul did a lot of traveling to spread the gospel, and the Philippian church respected Paul's work. Even though they were a financially poor church; they were spiritually rich. They prayed for Paul and tried hard to take care of him. They sent him special gifts throughout his missionary journeys. God always blesses the church that takes care of missionaries. Today's Bible verses were written by Paul while in a Roman prison. His attitude during this affliction is something we all need to follow.

Paul told the Philippian church, "But I have received everything in full and have an abundance; I am amply supplied, having received from Epaphroditus what you have sent, a fragrant aroma, an acceptable sacrifice, well-pleasing to God"(Phil. 4:18). Our church sends out many missionaries, and each planned trip is filled with crying and complaining about something. Paul witnessed his faith to the Philippian church by stating, "I have received everything." He never complained. The Roman prison could not stop his worship and praise to the Lord, "Rejoice in the Lord always; again I will say, rejoice! Let your gentle spirit be known to all men. The Lord is near. Be anxious for no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comprehension,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Phil. 4:4~7). Isn't that a great message? Paul always appreciated the church and its individuals who served Christ. He sincerely appreciated those who joined in Christ's suffering. He told the Roman church that Christians should always be "rejoicing in hope, persevering in tribulation, devoted to prayer, contributing to the needs of the saints, practicing hospitality"(Rom. 12:12~13). Peter acknowledged, "but to the degree that you share the sufferings of Christ, keep on rejoicing, so that also at the revelation of His glory you may rejoice with exultation. If you are reviled for the name of Christ, you are blessed, because the Spirit of glory and of God rests on you"(1 Pet. 4:13~14). God appreciates your offering of faith.

Paul reassured the Philippian church, "And my God will supply all your needs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in Christ Jesus"(Phil. 4:19). Even though the senders gave from what little they had, they would still have sufficient supplies. Paul wanted them to understand that God not only provided for him, but them too! Christians gain by giving. Some people feel a little sorry when someone gives them a gift, especially knowing that the giving person doesn't have much, but this is the wrong outlook. Paul did not have a sorry heart over the Philippian church's gift, but rather encouraged them to continue to be a giving people. Giving is a lesson in sowing and reaping. Investing in God's work brings spiritual and financial blessings. There is no limit to the Lord's resources and abilities to provide. When you have given to your utmost limit, you can only return to God a little of His own, and even that He will abundantly repay. Psalm 126:5~6 say, "Those who sow in tears shall reap with joyful shouting. He who goes to and fro weeping, carrying his bag of seed, shall indeed come again with a shout of joy, bringing his sheaves with him." The Lord blesses His giving children, "To grant those who mourn in Zion, giving them a garland instead of ashes, the oil of gladness instead of mourning, the mantle of praise instead of a spirit of fainting. So they will be called oaks of righteousness, the planting of the Lord, that He may be glorified"(Is. 61:3).

My dear friends, we have a Savior who provides for all our needs. Do you believe it? Can you sing, like David?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Ps. 23:1). Jesus is the one who reveals God to man, and in Him is everything we need, "that their hearts may be encouraged, having been knit together in love, and attaining to all the wealth that comes from the full assurance of understanding, resulting in a true knowledge of God's mystery, that is, Christ Himself"(Col. 2:2~3). Paul lives His life in Christ, "Therefore as you have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so walk in Him, having been firmly rooted and now being built up in Him and established in your faith, just as you were instructed, and overflowing with gratitude"(Col. 2:6~7). Living by faith and confessing your faith to others happens because Jesus Christ takes care of you and leads you. Paul never worried about earthly things, "Therefore if you have been raised up with Christ, keep seeking the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Set your mind on the things above, not on the things that are on earth. For you have died and your life is hidden with Christ in God. When Christ, who is our life, is revealed, then you also will be revealed with Him in glory"(Col. 3:1~4). Please stop seeking earthly things. Jesus asked, "For this reason I say to you, do not be worried about your life, as to what you will eat or what you will drink; nor for your body, as to what you will put on. Is not life more than food, and the body more than clothing?"(Mt. 6:25). God knows your needs. If you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He will provide everything for you.

Today is missionary Sunday. Let's be a giving church and take care of our missionaries.

다음 주일 설교

선교사 바울

[18]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8~19)

김성관 목사

바울은 모든 선교사 중에 최고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놀라운 감사 편지는 교회를 향한 그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사역을 빌립보 교회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재정적으로 가난했을지라도 영적으로 부요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를 도와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내내 특별한 선물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를 돌보는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보여 준 그의 모습에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그 무엇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바울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빌 4:18)고 빌립보 교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잘 준비했음에도 선교의 무언가에 대한 불평이나 요구로 가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감옥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4~7). 정말 굉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한 사람들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롬 12:12~13)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권고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벧전 4:13~14).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믿음의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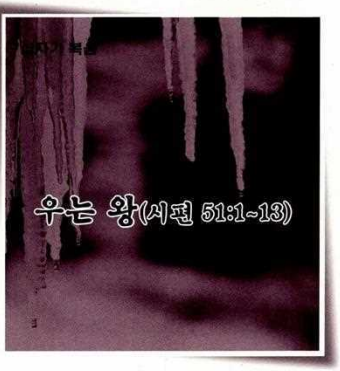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19)고 빌립보 교회를 격려했습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바울을 파송한 성도들은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베풂으로 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특히, 풍족하지 않음에도 베푸는 사람들에게 약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선물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주는 사람들이 되도록 격려했습니다. 베풂은 파종과 수확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드리는 것은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은총들을 누리게 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자원과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것들 중 약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를 더욱 풍성하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6:5~6은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님은 주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사 61:3).

우리에게는 구주가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구주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 예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 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 2:6~7). 믿음으로 살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울은 결코 세상 일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골 3:1~4). 제발 세상 것들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마 6:25).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들을 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베푸는 교회가 되어서 선교사들을 잘 지원하도록 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였다. 최초로 이스라엘 전역을 통일한 왕이 되었으며,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았다.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보였지만, 다윗은 그 순간 범죄하였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이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범죄한 다윗을 나단 선지자는 꾸짖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다윗왕은 선지자의 훈계를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기에 진심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통감하였다(롬 3:23 ; 딤전 1:15). 이와 같은 죄인의 울음이 시편 51편에 담겨 있다. 동정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울음이 아닌 진실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왕의 울음에 대해서 살펴보자.

●죄를 씻기 위한 울음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 긍휼이 아니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울음은 죄를 씻기 위한 울음이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시 51:1~2). 지금, 다윗은 자존심이 상해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윗은 사람과 분위기를 보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삼하 12:9)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삼하 12:13)고 회개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다(시 51:17). 우리의 공로나 의로움은 무가치하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2~14).

●죄를 고백함의 울음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시 51:3~4). 그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실 거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던 것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시 51:6~7). 죄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이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맹세하는 울음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눈물로 죄 씻기를 원하며 죄를 고백하였다. 아합왕은 선지자의 꾸중 앞에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만을 원했고, 웃시야왕은 오히려 화를 냈지만 다윗은 진실로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시 51:10~11). 맹세하는 다윗의 울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시 51:12~13).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눅 11:13).

우는 왕, 다윗은 자신의 죄를 씻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그의 울음은 진심이었으며,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한 사랑과 공의의 판결을 하셨다. 이후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었지만, 공의의 판결인 죄에 대한 고통(암논의 다말 강간사건,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울음이 있는가? 혹시 자존심이 상하거나 억울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울고 있지 않은가?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진실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진심 어린 눈물, 십자가를 붙드는 회개가 필요하다.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메시아의 죽음 62

천 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눅 22:42~43). 천사가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도왔다고 누가는 기록하였다.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 도왔다는 부분도 많은 논쟁이 되고 있다. 과연 천사에 대한 언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펴보자.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가복음(복음서 중 최초 기록)을 많이 참고하였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금식기도하실 때에 천사에 대해 언급했다.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막 1:13). 마태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할 때 천사를 언급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마 4:11). 그런데 누가는 동일한 사건을 기술하면서 천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눅 4:13). 이 구절을 보면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고 했는데 이 마귀가 누가복음 22장에 등장한 가롯 유다에게 들어갔으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의 유혹을 경고하셨다(눅 22:3,31). 이후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눅 22:53)라고 말씀하셨다.

구약성경에도 천사에 대한 언급이 많다. 특히 엘리야 선지자가 대표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였고, 바알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던 엘리야였지만 그는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권력자들을 피해 도망갔고, 지칠 대로 지쳐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고백하였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왕상 19:4). 이때 천사가 엘리야를 도왔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왕상 19:5~8). 다니엘도 비슷한 경험을 하였고(단 8:18) 이방의 왕도 주님의 사람을 돕는 천사를 목격하였다(단 3:25). 이와 같은 모습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도왔던 천사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구약에서 증거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모습이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시 91:11~12).

천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 곁에서 항상 도와준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도운 것도 천사였다(행 6:15). 마귀도 천사가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눅 4:10).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천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교만 때문이다. 모든 교만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여 영의 눈을 뜨자. 우리의 할 일은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뿐이다(막 14:37~38 ; 눅 22:40). 이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 계신 예수님이 천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것이다. 나의 삶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자(갈 2:20). 아멘.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시)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나는 주님을 믿은 지 2년 됐다. 2년 동안의 시간은 나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켰다. 별 볼일 없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빛으로 가득 찼다. 나는 평안해지고 신기한 뭔가가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다.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할 때 걱정하고 의심했다. 이젠 그런 걱정이 없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내려놓는다. 나의 삶은 기쁜 나날들이다.

올해 성탄절처럼 은혜로 충만한 그런 날이 없었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성극을 주님께 드렸다. 이 성극에서는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낮고 천하게 내려오심을 보여 주었다. 나는 성극을 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다. 이 날 나의 삶의 첫 성극에 참석했다. 내가 맡은 역은 여관 주인이었다. 나는 속으로 뭔가 놀랍고 감사했다. 왜냐하면 성극을 하면서 그 당시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 앞에 강한 빛이 들어옴을 느꼈다. 이것은 거룩한 성극이었다. 본 모든 자가 충만함을 받았다.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준 일이었다. 내가 그 전에는 그들을 보고만 다니며 나 같은 약한 자가 어떻게 도와 줄지 몰랐다. 이 일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것은 진심으로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충현교회에 감사하다. 믿음의 사람들이 준 돈으로 음식과 책과 수업에 필요한 곳에 쓴다. 그분들의 믿음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 비록 국경으로 나눠져 있지만 주 안에서 모두 하나이다.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힘이 되신 내 사랑의 주님께 감사드린다. 아멘.

2010년 12월 29일 설정거(참빛하늘나라교회, 몽골)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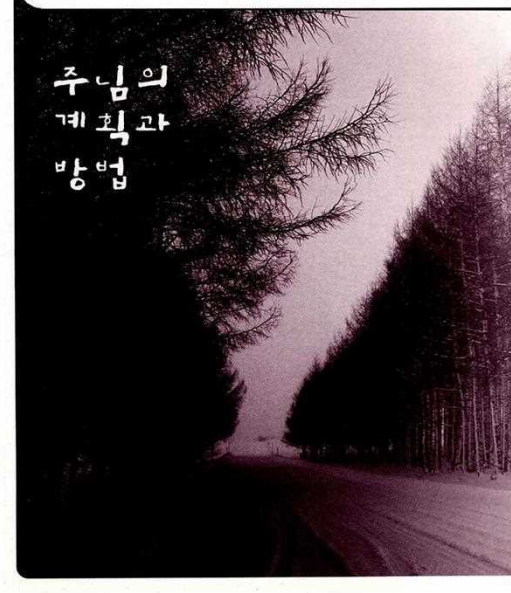
작년에 선교를 통해 많은 순수한 영혼들을 만나며, 선교의 소명을 분명히 보여 주셨다. 복음의 씨앗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성경책도 교회도 없는 열악한 환경을 안타까워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기도하였다. 교회를 짓거나 현지 사역자를 양육하는 일은 내가 하기에는 어려워 가장 믿을 수 있고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기를 기도하며 처음으로 매월 선교헌금을 드리기로 작정하게 하셨다. 올해도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설렘과 이번에는 어떤 비밀들을 보여 주실지 기대하면서 선교갈 여건은 되지 않았지만 일단 시작하였다.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허락된 직장의 휴가 승인과 3개월 동안 계속되던 감기가 모두 나았다. 또한 반대하던 남편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파송을 해 주었다. 준비하며 힘들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온 몸으로 느끼며 얼마나 감사하였던지….

믿음으로 출발하여 도착한 선교지에는 역시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 첫날밤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선교지에서 발새도록 쫓기는 꿈으로 인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감이 몰려왔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상태 그대로도 주님 사용하실 거죠?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다. 다음엔 경건회와 평가회 인도하는 방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인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미워지며, '다음엔 같이 안 와야지' 하는 마음까지 들었다. "주님 제가 왜 그러죠? 어떻게 온 선교인데 선교지에 와서 한 마음 되어야 할 팀원을 이렇게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 힘으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할 때는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잘 전할 수 있었는데, 경건회와 평가회 모임 때는 또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3일째 되는 날, 미워하는 팀원에 대해 주님께 맡기는 마음을 주시며, "은혜가 되시는 대로 인도하세요"라고 말하게 하셨다. 그 다음부터는 인도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한 마음이 되어 회개와 감사가 있게 하시며 오직 복음 전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하셨다. 사탄의 방해였음을 깨닫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셔서 사역이 끝날 때까지 날씨, 음식, 사역 방해자 등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오직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려는 열심을 모든 팀원들에게 주셨다. 참으로 구원은 한 개인 개인의 일이며,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이 비밀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교회와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선교 사역을 기대한다.

권정옥(집사, 22교구)



저는 이번이 처음 단기선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밖에 모르던 저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셨고, 제 생각과 경험만을 고집하던 저에게 주님의 계획과 방법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5박 6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먼저 주님께서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자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생의 축복이자 감사의 제목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평생의 축복이자 감사의 제목이 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교의 매 과정을 주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곳은 군부 독재국가인데다 우기여서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걱정으로 염려하던 저에게 주님께서는 적절한 숙소와 차량을 허락하여 주셨고, 날씨를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완전한 마음로 인도하여 주님의 복음을 듣고자 기다리는 영혼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걱정과 염려하던 제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셨고, 주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5박 6일 동안 철저히 주님의 일하심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죄인 된 저에게 이 모든 깨닫음과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은희(집사, 청년1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19일(수) ~ 1월 28일(금)	2교구 1팀	홍순길
1월 21일(금) ~ 1월 29일(토)	16교구 1팀	문연식

지난 주에 도착한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3일(월) ~ 1월 11일(화)	19교구 1팀	이수예

천국일꾼

천국일꾼은 미래다!

복음전파의 사명(막 16:15)을 감당하기 위한 천국일꾼들이 복음을 배우는 20개 교회학교.
이제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천국일꾼 양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천국일꾼들을 위해서 기도(딤전 2:1)합시다!
한창 복음 안에서 2011년을 꿈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영아부(오전 9:00 · 11:00, 제1교육관 110호)

엄마와 아빠와 알머니, 할아버지, 아기가 함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아기들의 각 가정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동행하는 가정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충만한 영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아부(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이제 제법 독립성이 자란 4~5세의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유아부의 장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늘 활기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을 알고 체험하도록 양육하여 천국일꾼으로 자라는 믿음의 기초가 쌓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아부의 목표입니다.

유치부(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6~7세의 취학 전 어린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53명의 선생님들이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추구하는 방향은 총 3가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도록 교육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도록 교육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도록 교육한다' 입니다.

초등1부(오전 10:45, 제1교육관 407호)

초등학교 1,2,3학년 어린 영혼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며 어디서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천국일꾼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아직 백지처럼 때묻지 않은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확실한 복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며 천국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초등2부(오전 10:45, 제1교육관 507호)

초등학교 4,5,6학년으로 구성되어 주 안에서 항상 기뻐 감사하며 교사와 학생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성장을 이루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올해에도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며 늘 기뻐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등부(오전 10:30, 갈릴리홀)

중학교 1,2,3학년을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으로 양육하는 곳입니다. 생기발랄한 청소년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예배와 선교와 전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것과 성경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중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등부(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가공되지 않은 원석들이 모인 곳이기에 가능성과 역동성이 있는 게 장점입니다. 고등부에 속한 모든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2011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한 참된 회개, 규칙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 봄, 1인 1명 전도, 나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년1부(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충연의 40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믿음을 실천해 가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청장년을 연결해 주고 영적 성숙을 도모함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을 세워나가고 땅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년2부(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50~59세의 장년들이 매주 예배와 분반공부 및 교제를 통해 장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각 반모임을 활성화시키고, 교제와 기도의 시간을 가져 영적 성장을 도모하며,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상담 · 심방 하며, 각종 모임과 교육 · 영적 훈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년3부(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60대의 모든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와 성령충만을 받는 교회학교입니다. 2011년도에는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복음의 증인이(1인 1명 이상 전도)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년4부(오후 12:30, 제1교육관 301호)

연령으로는 70~75세까지 해당됩니다. 장년3부를 지나서 소망부로 올라가기 전에 모여서 봉사하는 부서입니다. 2011년도에 추구하는 방향은 매주 3부예배를 드리고 집회에 참석하여 성도의 교제와 찬송부르기, 그리고 교회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매일 성경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소망부(오후 12:15, 갈릴리홀)

믿음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부서입니다. 소망부는 그리스도 앞에 상과 면류관 받는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1년도에도 거듭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2011년 신년감사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해가 바뀌고 새해 아침이 되어 신년감사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가짐은 낡고 더러워진 것은 벗어버리고 새롭고 깨끗한 것을 추구한다. 어제까지 일상과 다르지 않은 하루였지만 이제 작년이 되어버린 어제는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마음을 다잡는 아침이다. 오늘부터는 어제와는 다르리라 생각하면서. 새로운 것은 긍정적이고 의로운 것이며 밝은 것이 된다. 그래서 보이는 것, 먹는 것, 생각하는 것들이 마치 방금 새로 뜬 옹달샘 물처럼 깨끗하고 투명하다. 새해를 시작하면서부터 죄와 악한 것을 꼭 이루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번에도 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채 신년감사예배에 참석하였다.

온 성도가 모인 꽉 찬 예배당에는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았다. 모두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로 각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여느 예배보다 신중한 행동과 말끔한 옷차림, 좀 더 정성스레 부르는 찬양들을 통해 새로운 것을 얻고 또 자신의 계획 속의 아름다운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았다.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 처음에는 잘 그려지는 것 같다가 끝내 망쳐버렸다고 생각한 나머지 한 장을 과감히 넘겨버린 스케치북의 새 페이지처럼 시작부터 다시 하고 싶었다. 새로운 그림과 주제를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었고 멋지게 그려내고 싶었다. 나도 올해가 저물 때에는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그림을 그려내고 싶었다.

그러나 새해 아침의 이런 바람들은 지극히 반복적이고 익숙한 일상에 물들어 있는 탓인지 눈에 띌만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였다. 저녁이 되면서 그저 그런 날이 저물어가는 것처럼 또다시 무뎌지고 있었다. 덤덤한 마음으로 대학부 집회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하늘을 보았다. 몇 안 되는 별이 심심한 검은 하늘 사이에 꽂혀 빛나고 있었다. 순간 나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

주님께서는 내가 정한 때와 장소에 의해 움직이거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언제나 변함없으시다는 것이었다. 낮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는 저 별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새해 아침 다짐했던 그것처럼 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신년감사예배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영원 속에 거하시며 변함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해를 핑계 삼아 나의 지나온 죄 된 과거를 합리화하려는 듯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변화되려는 나의 노력보다 먼저 예수님은 꺼지지도 않고 수천 년을 동일하게 빛나는 저 별들처럼 늘 변함없이 나에게 도전하시며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어리석은 니고데모였다. 그러나 이제는 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여 주님의 사역이 나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기를 기도드린다.

박절호(대학부)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1536	손지영	양육반	1	강옥련	1551	손유안	유아부	10	김연태
1537	신혁현	양육반	1	유재진	1552	전예정	양육반	2	함희정
1538	신희철	청년1부	20	이숙희A	1553	남승훈	중등부	1	강 옥
1539	김두일	양육반	2	김용조	1554	최상용	양육반	14	김진옥
1540	양영규	소망부	22	양미정	1555	김현순	양육반	14	김진옥
1541	송경선	소망부	22	양미정	1556	이해근	양육반	20	최미자
1542	신재관	양육반	24	김정운	1557	최주연	중등부	16	김유림
1543	고지영	양육반	24	김정운	1558	임한섭	양육반	6	안석현
1544	신강호	유아부	24	김정운	1559	유복순	소망부	4	장득경
1545	신강은	유아부	24	김정운	1560	지형섭	양육반	21	박연자
1546	이지수	양육반	18	김 근	1561	김순자	양육반	2	이향란
1547	윤정임	양육반	9	옥미자	1562	이호제	청년1부	12	심정례
1548	김태응	양육반	13	박옥자	1563	박미성	양육반	1	
1549	김정순	양육반	13	김정연	1564	주재영	청년1부	6	조연경
1550	이정선	양육반	21	정의영	1565	한인규		1	

2010년 제6차 학습세례식 세례자

"저,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저는 2010년 12월 26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온 지는 2년 정도 되었어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 지름길이 아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길을 돌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도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종교를 믿으며 자라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라는 곳에 다가가기가 너무 어색하고 조금은 어렵기도 해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를 인도해 주신 어머니가 큰 힘을 주셨어요. 이젠 저에게 위로와 큰 믿음이 되시는 주님을 제가 더 찾게 되었어요. 사실 세례도 진작에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저런 현실에 있는 일을 중시하느라 계속 미뤘어요. 그래서 이번 해가 가기 전에 세례 받는 것을 목표로 세우게 되었고, 그래서 26일에 있는 세례식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주님의 진정한 자녀로 인정받았으니 제 행동 하나하나에도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약속하고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더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귀찮아서 예배에 소홀했던 것도 뒤늦게 후회가 되더라구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많은 것을 깨닫고 점점 믿음이 커지는 것 같은 마음이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전에는 성찬식이 있는 예배 날이면 저는 시무룩해졌어요. 주님의 떡과 잔을 아직 받지 못하는 신분이어서 반짝반짝한 금 쟁반을 바라만보고 넘겨주었거든요. 하지만 이젠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임명받았기에 자격이 생겼어요! 다가오는 첫 성찬식에 벌써부터 설레네요. 예배에도 열심히 나가고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녀가 될게요.

김소진(대학부)

교회소식

모 임

1. 권사 전체월례회
   일시 : 19일(수) 12:40 장소 : 갈릴리홀
2. 남·녀 전도회장 전체월례회
   일시 : 23일(다음 주일) 15:10
   장소 : 제1교육관 407호

별 세

1. 강팔님 타교권사(전옥순 권사의 모친·김신국 장로의 장모, 24교구 동천1구역) / 10일 별세, 12일 장례
2. 주하원 성도(남영숙 권사의 남편, 16교구 해화명륜구역, 5교구 주혜연 집사의 부친·김종림 집사의 장인) / 12일 별세, 14일 장례

결 혼

1. 이상윤 군(이용우 씨·송문자 씨의 아들)과 이단비 양(문효순 집사의 딸, 18교구) / 22일(토) 12:00, 신라호텔(서울) 2층 다이너스티홀
2. 장덕희 군(장금줄 안수집사·서명숙 성도의 아들, 20교구)과 김연희 양(김박일 성도·이선옥 성도의 딸, 타교) / 22일(토) 13:30, 듀오웨딩홀(신당동)
3. 최준형 군(김영구 권사의 아들, 4교구)과 박여진 양(박천수 씨·김선옥 씨의 딸) / 22일(토) 16:00, 강남목화웨딩문화원 2층 르네상스웨딩홀

주간충현 및 교재연구 실행위원 영성훈련 일 시 : 21일(금)~22일(토) 장 소 : 충현기도원(소망관)

제1교구위원회 구역장 영성훈련 일 시 : 22일(토) 10:30 장 소 : 갈릴리홀

15교구 영성훈련 일 시 : 22일(토) 9:40 장 소 : 제1교육관 301호

2011년 상반기 전도회장단 영성훈련
일 시 : 1월 16·30일(주일), 2월 6일(주일) 15:10 대 상 : 전도회장, 총무, 회계, 전도부장 장 소 : 제1교육관 407호

2010년 전도회 회계감사
일 시 : 2일~30일(주일) 대상기간 : 2010년 1월~12월
장 소 : 제1교육관 404호 전도위원회실 준비서류 : 시산표1부(2010년 1월~12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예금통장

음향·영상 봉사자 교육
교육기간 : 1월 9일~2월 6일(2주 및 5주 과정) 주일찬양예배 후 2시간 문 의 : 음영실(본당 5층, #224) 교육장소 : 본당 112호

전도회 5·6지회 주력기도회
일 시 : 16일(오늘) 16:00 장 소 : 갈릴리홀 대 상 : 13~18교구

선교언어 훈련
일 시 : 매주일 15:00 장 소 : 제1교육관 405호(내몽골) 505호(베트남) 506호(네팔) 508호(인도) 509호(캄보디아)

충현교회 촉탁직원 모집

1.모집부문 경비직(남자 세례교인)
2.제출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3.서류제출처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402)

충현 음악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악기 : 플룻·오보에·클라리넷·바순·호른·트럼펫·트롬본·유포니움·튜바·바이올린·비올라·첼로·성악·피아노·오르간·화성학·기초음악이론·반주법
대상 : 유아~성인(연령제한 없음) 신청 :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문의 : 찬양위원회 552-8200(본당 3층 내선 259, 260, 261)

1월 충현 기도의 창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1.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2.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3.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4.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5.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6.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7.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8. 충현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함양충현농원)과 공사 중인 사랑관(충현기도원) 및 준공된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9. 2011년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풍성한 말씀의 잔치(딤후 3:16)가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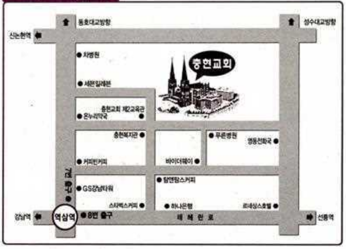
새벽기도회 (1/17~1/23)

	17 (월)	18 (화)	19 (수)	20 (목)	21 (금)	22 (토)	23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윤선한	김정훈/이찬재	장지원/김 광	황의연/김배규	박지훈/안세현	하종철/김정연	황의연/강덕필
설 교 본 문	메시아의 죽음	마 24:31~42	마 24:43~51	마 25:1~13	마 25:14~30	마 25:31~46	마 26:1~16

예배 담당 (1/19~1/23)

날짜	예배	설 교	사 회	기 도	찬 양
1/19	수요 I	예수님의 제자는(마 16:24) 김성관 목사	강호성	유성자	예수 나를 오라 하네(호산나 찬양대·오케스트라)
	수요 II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막 5:25~34) 박지훈 목사	김운창	주순회	인생길 험하고(실로암 찬양대)
1/21	금요집회	김성관 목사	황의연	예루살렘 찬양대·오케스트라 / 오보에 박소영 / 소프라노 김희영	
1/23	주일 I	선교사 바울(빌 4:18~19) 장지원 목사	김정훈	예정호	〈예배 전 찬양〉
	주일 II	선교사 바울(빌 4:18~19) 이광현 목사	탁정헌	윤병식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외 / 테너 강성희(가브리엘 찬양대)
	주일 III	선교사 바울(빌 4:18~19) 김성관 목사	하종철	정창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외 / 현악4중주
	주일 IV	선교사 바울(빌 4:18~19) 김익환 목사	안치원	전홍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외 / 아멘 오케스트라
	주일 V	선교사 바울(빌 4:18~19) 정진호 목사	김운창	신상수	주 날 불러 이르소서 외 / 예본 오케스트라
	주일찬양	갈렙의 사역(수 14:6~14) 김성관 목사	양재웅	정인욱	찬양위원회 전임·지휘자 중창 / 선교위원회 / 1교구

교회 오시는 길



예배 및 집회 안내 (☎ 02-552-8200)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 당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 당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 분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전 11:00	❶오전 9:40 본당 앞 출발 (9:50 남부교회, 10:20 야탑역 경유)
		❷오전 9:50 본당 앞 출발(직행)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찬양집회 후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II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Cambodian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호
유 아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초 등 1 부	오전 10:45	제1교육관 407호
초 등 2 부	오전 10:45	제1교육관 507호
중 등 부	오전 10:30	갈 릴 리 홀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 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청 년 2 부	오후 12:10	제2교육관 2층

구 분	시 간	장 소
장 년 1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장 년 2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장 년 3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장 년 4 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1호
소 망 부	오후 12:15	갈 릴 리 홀
사 랑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오후 12:40(성인)	제2교육관 1층
탁 아 부	(주) 오전 8:30~오후 6:00 (수) 오전 10:30~12:00 (금) 저녁 6:30~저녁 9:00	선교관 1층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 다 니 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 4:30	제1교육관 7층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 현 복 지 관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 성 관

■ 시무장로

강철형 장년1부장, 고제숙 행정위원장, 구원섭 예배안내부장, 구재완 3교구장, 구창회 22교구장, 권명옥 건축위원장, 김구형 제1교구위원장, 김규석 선교위원, 김단용 장년4부장, 김명성 외선부장, 김성호 제1교육위원장, 김순곤 장년2부장, 김신국 함양농원부위원장, 김연근 기획위원, 김연태 10교구장, 김영달 13교구장, 김영운 영아부장, 김영주 대학부장, 김윤환 고등부장, 김종구 기도원·동산부장, 김종홍 9교구장, 김중선 예루살렘찬양부대장, 김철환 16교구장, 김태식 당회부서기, 김홍기 에바다부장, 김환기 봉사위원, 노은영 예배위원, 류기명 찬양위원장, 문효식 소망부장, 박광식 5교구장, 박덕양 시설영선부장, 박상대 임마누엘찬양대장, 박성명 새가족등록부장, 박우현 할렐루야찬양대장, 박재현 건축위원, 박홍규 유아부장, 배춘식 선교위원, 백봉선 선교위원장, 백종용 14교구장, 석영식 재정위원, 송두섭 재정위원장, 송한천 탁아부장, 신광철 15교구장, 신상수 성례부장, 안동현 장년3부장, 안석현 제2교육위원장, 양기수 새가족양육부장, 엄복섭 전도위원, 예정호 17교구장, 오순도 사랑안내부장, 원용철 기도원부부장, 유상태 7교구장, 유병식 건축위원, 윤석민 청년1부장, 윤선한 1교구장, 윤해규 18교구장, 이계인 재정위원, 이달옥 유치부장, 이보신 중등부장, 이상복 청년2부장, 이상석 새가족지원부장, 이상해 시설영선부부장, 이성섭 봉사위원, 이세영 6교구장, 이실호 봉사위원, 이창회 선교위원, 이태식 11교구장, 이호일 동산부부장, 이홍기 가브리엘찬양대장, 이 훈 감사위원장, 임광신 초등2부장, 임창식 아멘찬양대장, 장경옥 실로암찬양대장, 장철규 21교구장, 장철환A 봉사위원장, 장철환B 제2교구위원장, 전계식 예배위원, 전은배 초중도서실부장, 전홍렬 재정위원, 정선현 제3교육위원장, 정창수 기획위원장, 정청길 20교구장, 정태동 4교구장, 조유준 예배위원, 조종환 예배위원장, 조중민 8교구장, 지규성 전도위원장, 진학래 24교구장, 진홍용 당회서기, 차신득 새가족위원장, 최경하 선교위원, 최민석 초등1부장, 최세진 2교구장, 최윤덕 23교구장, 최진성 19교구장, 추병창 봉사위원, 함철주 봉사위원, 황의만 12교구장

■ 부목사

강영기 외선부, 강호성 2교구, 김근영 1교구, 김백만 20교구, 김운창 10교구, 김익환 15교구, 김정훈 7교구, 나기태 19교구, 문성수 4교구, 박용현 14교구, 박은효 18교구, 박인기 에바다부, 박지훈 8교구, 안치원 24교구, 양재웅 주간충현, 양태선 17교구, 유재진 3교구, 유현철 대학부, 이광현 16교구, 이재현 6교구, 이희식 12교구, 장지원 13교구, 정민권 5교구, 정진호 선교위원회, 최성득 11교구, 탁정헌 9교구, 하종철 21교구, 하형욱 23교구, 황의연 22교구

■ 여전도사

강덕필 8교구, 강영미 15교구, 강옥련 1교구, 김말자 14교구, 김연식 3교구, 김정연 10교구, 김정운 24교구, 김정자 16교구, 김정희 4교구, 나영실 22교구, 송진경 대학부, 오숙영 13교구, 옥미자 9교구, 윤인숙 6교구, 이복순A 20교구, 이복순B 11교구, 이옥주 18교구, 이향란 2교구, 임태주 17교구, 장혜구 19교구, 전은희 7교구, 정원임 23교구, 최문실 12교구, 홍순애 5교구, 황순란 21교구

■ 사랑부지도 신범식

■ 전임지휘자 김승회 김진협

■ 전임연주자 이에스더 장연희 한경숙

■ 선 교 사 송요한

Copyright© 2011 충현교회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